

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

도종환 (1955-)

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

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

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

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

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

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

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

다 젖으며 피었나니

바람과 비에 젖으며

꽃잎을 따뜻하게 피웠나니

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